

# 가뜩이나 일 줄었는데 세금만 더?... 시멘트업계 ‘한숨’

국회서 자원시설세 부과 움직임  
“시멘트 톤당 1000원씩 과세해야”  
업계 “석회석에 부과... 이중 과세”  
개정안 통과면 연500억 부담 우려

시멘트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일면서 시멘트업계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건설경기악화 등으로 가뜩이나 시멘트 수요가 줄고 있는 와중에 지난 국회에서 발의했다 논란 끝에 문턱을 넘지 못한 관련법이 이번 국회에서 재차 발의되면서 자칫 통과시엔 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약 500억원의 비용을 더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멘트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원료인 석회석에 이미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어 완제품인 시멘트에 한 차례 더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 논란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0일 시멘트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명은 생산된 시멘트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달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을 기존의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외에 시멘트까지 추가하고, 톤(t)당 1000원을 과세해



시멘트 업계가 21대 국회 들어 시멘트 t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시멘트 공장 전경.

65%는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나머지 35%는 광역지자체(도)에게 각각 배분해 지역을 위해 쓰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현재 국내 시멘트 공장은 강원도 동해, 영월, 삼척, 옥계와 충북 단양, 제천 등에 집중돼 있다.

앞서 유사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시멘트 공장이 밀집해 있는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지역구인 이철규 의원(현 국민의힘)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대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21대에서도 의원직을 유지한 이철규

의원은 시멘트업계가 해당 지역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기로 함에 따라 재발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와중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하고, 3선으로 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당의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하면서 시멘트업계가 같은 이슈로 또한번 고민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다.

시멘트업계는 관련 개정안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시멘트 주원료인 석회석에 대해 이미 지역자원시설세를 물고 있는데, 완제품인 시멘트에 대해서 또한번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멘트를 생산할 때 나오는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도 배출부과금을 내고 있어 같은 환경피해를 놓고 중복해서 과세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세수를 추계한 결과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될 경우 업계 전체적으로 연평균 522억원(2017~2021년 평균)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멘트업계에선 지역자원시설세를 연평균 500억원으로만 계산해도 기존에 내고 있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연간 약 130억원),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연간 약 230억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약 400억원)까지 환경 관련 비용만 1년에 약 126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 가운데 지역자원시설세 부담이 가장 크다.

세금을 물어야 할 시멘트 회사들의 경영 여건도 좋지 않다.

시멘트 생산량은 건설경기악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2017년 당시 5670만에서 5130만t(2018년)→4950만t(2019년)으로 하락했고, 올해엔 이보다 더 떨어진 4550만t으로 추산된다. 이때문에 일부 시멘트사의 경우 올해 3·4분기엔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게다가 지역자원시설세를 견어갈 지자체가 이를 당초 목적에 맞게 쓰지도

의문으로 제기되고 있다.

권은희 현 국민의당 의원은 20대 회기였던 지난해 11월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소위에서 “외부불경제(대기오염, 소음 등)에 대해 목적세를 거둬들이고 이 세금을 외부불경제를 줄이는 일, 특히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받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지자체가) 그런 행정역량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의 문”이라며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자체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과 생명에 대한 관리, 능력, 의지, 지출 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런 논란 속에서 이개호 의원의 이번 대표발의에 참여한 10명 의원 중에선 시멘트 공장이 있는 지역구 출신 의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의 경우 지역구에 포함된 전남 장성에 고려시멘트가 위치해 있지만 해당 공장도 오는 2029년께는 문을 닫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이중과세, ‘중복과세’에 더해 시멘트는 공업제품으로 지하자원과 같은 특정자원이 아닌 데도 여기에 과세하는 것은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산업 제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휴테크 “명곡 리듬에 맞춰 힐링 마사지”

유니버설뮤직과 전략적 제휴 맞손  
콜드플레이 곡, 영화 OST 등 탑재

휴테크는 세계 최대 음반사인 유니버설뮤직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휴테크는 콜드플레이의 ‘Fix You’, 영화 트와일라잇의 OST ‘A Thousand Years’ 등을 안마의자에 탑재했다.

요한 파헬벨의 캐논 D장조 연주곡과 ‘공주는 잠 못 이루고(Nessun dorma)’와 같은 고전 명곡까지 총 5곡도 신



제품 안마의자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곡의 박자와 리듬 등에 따라 음파진

동 마사지의 강도와 마사지 모션이 변화하는 기술도 적용했다.

휴테크는 추후 출시 예정인 신제품에도 유니버설뮤직과 제휴를 맺은 음원을 탑재할 계획이다.

한편 휴테크는 오는 15일까지 ‘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 쇼핑 주간에 참여한다. 카이 SLS9 임페리얼 블루 및 최근 출시한 카이 RE7 등 총 6가지 안마의자를 최대 32%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휴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 이브자리 대리점서 구스 할인행사

이브자리가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400여 개 대리점에서 구스 대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채로운 시그니처 구스 라인 ▲중량별 프리미엄 구스 속통 등을 선보인다.

시그니처 구스 라인 4종은 모던 디자인의 베이직, 이드, 센스타임과 엘레강스 스타일의 메리벨 구성이다. 스트라이프, 플라워 패턴에 화사한 색감으로 겨울에도 포근한 침실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백지연 기자

## 중기중앙회, 中企 일자리 인식제고 나서

교통방송과 인식 개선 실무협약  
공익 캠페인, 관련 콘텐츠 등 제작

중소기업중앙회가 교통방송과 중소기업 일자리 알리기에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도로교통공단 TBN 한국교통방송과 ‘대국민 중소기업 일자리 인식개선을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대국민 중소기업 일자리 인식개선 위한 공익 캠페인 추진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관련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TBN 한국교통방송과 함께 오는 16일부터 22까지 ‘희망칼럼’

(FM 100.5)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과 청년을 대상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종찬입니다!’의 고정코너 ‘청년을 위한 JOB담’을 통해서도 중소기업 일자리 현황을 알리고, 다양한 지원정책과 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첫 방송은 11월 10일이며 12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앙회는 청년들이 갈만한 관심은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알리는 등 중소기업으로의 취업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코웨이, 위생·관리·성능 담은 ‘가습공청기’

‘듀얼클린 가습공기청정기’ 선보여

코웨이는 위생, 관리, 성능의 3가지 요소를 혁신한 ‘듀얼클린 가습공기청정기(APMS-1020A·사진)’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듀얼클린 가습공기청정기는 수조부내 물 고임을 방지해 대장균을 99.99% 감소시키는 특허받은 기술 ‘워터락’을 적용했다. 이 기술은 가습 기능을 작동시킬 때 자동으로 물통(수조부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의 입구를 열고, 가습 기능을 꺼놓으면 물통 입구를 차단하는 물 제어 시스템이다.

또, 수조부에 남아있는 물이 수조 및 필터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자동으로 건조하는 기능도 탑재했다. 워터락과 수



조 및 필터 건조 기능은 가습청정을 사용하다 전원을 끄더라도 자동으로 작동해 세균 번식을 최소화한다.

렌탈료(6년 약정·등록비 10만 원 기준)는 ▲방문관리서비스 선택 시 3만 2400원 ▲자가관리서비스 선택 시 2만 5400원이다. 일시불 구매 가격은 120만 원이다. /김승호 기자

## 펜이야 뽀뽀로야?... 모나미, 한정판 출시

모나미가 롯데제과와 협업을 통해 ‘뽀뽀로×모나미 153 DIY 펜 키트(사진)’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뽀뽀로×모나미 153 DIY 펜 키트는 11일 뽀뽀로데이 하루 동안 모나미 인사동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방문객 100명에 한정 판매한다.

컬러별 DIY 펜 키트는 초코, 누드, 스트로베리쿠키, 화이트쿠키 뽀뽀로모양의 모나미 153볼펜 바디 4종과 구름, 불펜 심, 스프링, 노크 구성이다. 불펜 심은 블랙, 코코 브라운, 머스타드 옐로우, 아톰 레드로 총 4가지 색상이다. 소



비자 가격은 3000원이다.

모나미는 뽀뽀로데이 당일 모나미 인사동점을 방문한 후 인증사진을 본인 SNS에 올리면 모나미 153 화이트를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백지연 기자